

글로벌 인재육성 위한 시설 건립

익산에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설립... 사업비 60억 지상 3층 규모

영어와 중국어 등을 교육하는 외국어교육지원센터가 익산에 들어선다.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옛 이리남중 유휴교사를 활용해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외국어프로그램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어교육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60억원(자체예산 45억원, 익산시청 15억원)으로 부지 1만8800㎡에 건물 약 3200㎡ 규모로 지상 3층 건물에 23.5개 교실과 급식실이 있다. 올 해 3월 설계 마무리와 함께 착공을 시작해 2020년 3월 개원예정이다. 외국어교육지원센터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외국

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에 외국문화이해 및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업과 공동체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익산지역 초·중·고교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수용인원은 1회 100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체험중심 몰입

형 영어교육, 중국어·독일어·베트남어 등 초급반부터 실력반까지 다양한 수준별 외국어교육, 시민 외국어교육, 세계문화유산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황·체험 중심의 언어교육을 통해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생활 외국어 능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새해 맞아 전국 인권교육 교사들 한자리에

전주서 워크숍 열려... 학생인권조례 제정·공유·협력관계 구축

전국의 인권교육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4~5일 이틀간 '전국 인권교육 교사 워크숍'을 전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을 비롯해 서울, 인천, 충남, 강원, 광주, 세종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교육 교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관련 정책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정착화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지역별 인권교육 현황과 2019년도 계획을 소개하고, 지역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 하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2019 전국 인권교육 방향을 제안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준비돼 오프선 이리교현초 교사의 발제를 맡고, 각 지역의 교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염규홍 인권옹호관은 "새해를 맞아 전국의 인권교육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인권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별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정시모집 경쟁률 6.38대 1 기록... 호남지역 주요대학 1위

전주대학교가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경쟁률 6.38대 1을 기록하며 호남지역 주요 종합대학 중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530명 정원에 3,383명이 지원해 평균 6.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북 지역 주요 종합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에서도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또한 우리 대학은 전북 지역 수시와 정시를 합한 종합 경쟁률 부문

에서도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모집 군별로는 '가'군이 160명 모집에 1,266명이 지원해 평균 7.91대 1을 기록했고, '나'군은 91명 모집에 552명이 지원해 평균 6.07대 1을, '다'군은 279명 모집에 1,565명이 지원해 평균 5.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단위별로는 '가'군 예술심리치료학과가 12.7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나'군 한국어문학과가 12.60대 1, '가'군 토목환경

공학과 11.44대 1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주대 이호준 입학처장은 "우리 대학의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와 기업체 수요, 지자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수험생에게 매력으로 다가간 것 같다"며, "학생과 기업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중심으로 행정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전북지역 경쟁률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정시모집 4.21대 1... 경쟁률 상승 '가'군 사회교육과 10대1 최고

전북대학교가 정시 모집 원서접수 결과 4.21대 1을 기록했다. 2,001명 모집에 8,419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4.1대 1보다 상승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도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전형별로는 925명을 모집한 정시 '가'군 일반전형에 3,870명이 지원해 4.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935명을 뽑는 정시 '나'군 일반전형에는 4,237명이 지원해 4.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시 '가'군의 지역인재 전형은

4.45대 1, 농어촌학생전형 5.67대 1, 기회균형선발전형 6대 1을 기록했다. 정시 '나'군의 경우 농어촌학생전형 6.25대 1, 기회균형선발전형 8.5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가'군 일반전형에서 10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해 10대 1을 기록한 사범대 사회교육과와 '나'군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한 공대 소프트웨어공학과였다. '가'군으로 모집한 의예과의 경우 일반전형 3.61대 1, 지역인재전형

4.45대 1을 기록했고, '가'군 치의예과는 6대 1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가'군 일반전형에서는 의류학과(7.27대 1)와 농생물학과(6.79대 1), 생물산업기계공학과(6.45대 1), 산림환경과학과(6대 1)가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나'군 일반전형에서는 수의예과(9.58대 1), 음악과 관악 플룻전공(9대 1), 사회복지학과(8.86대 1), 스포츠과학과(7.75대 1), 생애조경디자인학과(7.5대 1)의 경쟁률이 높았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정시모집 경쟁률 11.95대 1 기록... 실용음악학부 전국 최고수준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412명 모집에 4924명이 지원하여 1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시모집에는 실용음악학부, 공연미디어학부는 전국 최고수준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호원대 학부·과 중 항공정비공학과 25.5대 1, 물리치료학과가 17대 1, 간호학과

9.09대 1, 응급구조학과 7.5대 1, 항공관광학과 7.33대 1, 치위생학과 6대 1 등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부흥하는 항공정비공학과 및 교량화 시대에 발맞춘 보건의료계열이 강세를 나타내며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신상열 입학관리실장(응급구조학과 교수)은 "자율개선대학 선정 및 2018년도 75.8% 취업률과 함께 최근 4년간 전국 최상위권의 높은 취

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어 우리대학에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된 것 같고, 취업중심대학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정시모집 합격자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호원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부분일식 공개관찰 행사 가져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부분일식 공개관찰 행사를 6일 9시 30분부터 11시 까지 운영했다.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가능하다. 지구에 달의 그림자가 비치면 그 그림자 속으로 익산지역이 자전해 이동함으로써 일식이 생긴다. 일식이 생긴 시각은 익산기준 6일 오전 8시 36분에 시작해서 11시 3분에 끝났으며, 달이 태양의 일부만 가리므로 부분일식으로 나타났다. 특히하게도 2019년 12월 26일에도 일식이 일어난다. 태양이 약 50%정도

가려지는 부분일식은 내년에도 있지만, 일 년에 두 번 일식이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은 55년 후인 2074년 1월 27일과 7월 24일에 일어난다. 전북과학교육원에서는 6일 오전 관람객 모두에게 일식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예약자 40명은 전시체관 4층에서 일식체험기 공작과 부분일식을 체험하고, 일반관람객은 야외 부스에서 일식관찰기구를 활용해 부분일식을 관찰했다. 한편 일식을 관찰할 때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시력저하가 우려되므로 일식관찰기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올해 정시 교대·의대도 경쟁률 하락

불수능 여파로 지원자 대폭 감소 서울대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교육대학과 의학계열 대학들도 경쟁률이 떨어졌다. 지난 4일 진학사에 따르면 2019학년도 교육대학 원서접수 마감결과 1838명 모집에 3501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은 2.67대 1이었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506명 감소했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곳은 춘천 교대로 지난해 4.04대 1에서 2.18대 1로 급감했다. 춘천교대는 지난해까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에 10% 가산점을 부여해 자연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올해부터 가산점 비율을 5%로 줄였다. 그 다음으로 하락폭이 큰 곳은 서

울교대였다. 서울교대는 교대 중 국어영역 반영비율이 33.3%로 가장 높은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격돌하는 의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19 의대 정시 원서접수 마감 결과 1254명 모집에 8839명이 지원해 6.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6.95보다 소폭 감소했다. 군별로는 가군 17개 대학 595명 모집에 2397명이 지원해 4.0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군 12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59대 1, 다군 8개 의대는 14.04대 1의 경쟁률이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까다로운 수능으로 예상치 못한 수능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